

모바일 특구 통한 '글로벌 리더' 야심

생활형 로봇 · HSDPA/와이브로 상용화 · DMB 확대 등 약속

정리 | 모바일타임스 편집부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에 수립한 IT839전략을 수정·보완한 u-IT839전략과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월 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u-IT839전략에는 기존 8대 서비스 중 인터넷 전화는 상용화됨에 따라 DMB와 DTV는 통합하는 대신에 통방융합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 서비스'가 추가됐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광대역통합망(BcN)에 통합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추가됐으며, 9대 신성장 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돼 RFID/USN기기가 추가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u-IT839전략에 의해 2010년까지 관련 산업이 연 평균 14.2% 성장해 향후 5년간 생산액 총 576조원, 경제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총 266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통부측은 브리핑을 통해 "u-IT839전략은 서비스·인프라·신성장 동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적극 육성 및 IT와 타 부문간의 융·복합화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00만원대 국민로봇 출시

정통부는 금년에 100만원대 국민 로봇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로봇을 개발시 제품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해부터 국민로봇사업단을 발족하고, 부품의 모듈화와 기기간 호환성 보장을 위해 로봇 플랫폼 표준화 추진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국민로봇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SDPA·WiBro 상용서비스 개시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 최초인 WiBro서비스가 개시(06년 말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 서비스 제공 예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용화를 점검·지원하고, WiBro에 특화된 이용 요금체계를 마련, 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와이브로 망 개방 이행상황, 투자실적 점검으로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보다 속도가 향상된 HSDPA(최고속도 16Mbps로 고속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지원하는 W-CDMA 기술방식 중 하나) 서비스를 금년중 상용화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이동 초고속인터넷시대가 개막되게 된다.

■지상파DMB 방송지역 확대

정통부는 지역 지상파DMB의 사용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한다. 또 방송위에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를 허가추천하면 조기허가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손 안의 TV시대'를 열 계획이다.

한편 IT839전략의 대표적 성과물인 DMB가 CDMA이후 상용화된 최대 IT 효과 품목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MB가 지난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채택된 데 이어 올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올해내 위성 및 지상파 DMB가입자가 210만명에 이르고 2010년에는 1500만명에 이르고 2010년까지 DMB단말

기의 누적 수출액이 3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TV 전국방송 실시

'04년에 광역시부터 시작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충주, 원주, 천안 등 17개 시·군 지역(41개 디지털 TV 방송국)까지 확대, 전국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난시청 및 전파음영지역이 최소화되어 국민들에게 고품질 실감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정통부는 제한적 인터넷실명제를 도입·정착시키고 사이버 폭력 분장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과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PTS) 개발을 통해 IT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동 위·변조 확인시스템'과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정보보호 자동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한다. 인터넷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 자동탐지시스템을 연간 200회 가동, 약 7만개의 주요 홈페이지를 해킹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격차 해소

정통부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각지대 13만 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혜택에 있어서의 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탈북자·노인·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89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2만5천대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한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위해 올해 총 43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 증권사 등 민간금융기관과 제휴확대로 우체국을 통해 금융,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허브로 육성한다.

■모바일 특구 구축 등 'M1프로젝트' 추진

정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2010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을 위해 'M1(Mobile Number

One)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프로젝트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 10주년을 기념하고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모바일 환경 구현을 위한 모바일 특구 구축 ▲저렴하고 안전한 모바일 환경 조성 ▲글로벌 모바일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경쟁 우위 확보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 환경 구축 ▲모바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양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바일 특구(Mobile Special District)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기술, 표준의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유지역(FTZ: Free Technology Zone)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혁신적인 모바일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경쟁력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국내 최초 UN 산하기구인 ESCAP ICT센터 개소

정통부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ICT 훈련 센터를 개소하여 개도국 IT인력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제 IT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세계인과 함께 하는 첨단 IT 국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IT분야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한다.

■'u-코리아' 출범

정보통신부는 도시건설, 국방, 건강, 결제수단, 사회안전망, 교통 등의 분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행자부·국방부·건교부·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과 법, 제도의 정비를 본격 추진하는 'u-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시의 지하시설물관리, 유비쿼터스 항구 건설 등 분야별 적용기술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군수관리에 무선인식(RFID) 기술을 적용하고 견마용 로봇의 개발과 전술지휘통제체계(C4I)사업 성능 강화 사업을 통해 군전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K**